

텍스트상호관련성에 대하여(1)

—투르니에의 경우—

金 光 南

<目 次>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1

「로빈슨 크루소」를 언제 읽었는지 나는 그것을 기억해 낼 수 없다. 내 머리속에 서식하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는 석사논문을 쓰기위해 읽었던 발레리의 「로빈슨 크루소」이다. 발레리는 그 글에서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비축할 수 있게된 로빈슨 크루소에게 다가온 사유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다. 로빈슨 크루소는 공작인 homo faber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유인 homo sapiens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기억을 통해, 바다 위에 자신의 사유의 섬을 세우는 로빈슨 크루소! [발레리, 417-418]. 그 이미지는 내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았다. 그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김화영교수의 「방드르디」 번역본을 읽었다. 투르니에 Tournier의 대표작이라고 알려진 그것은 테포오의 「로빈슨 크루소」를 거의 완벽하게 다시 베끼고 있었다. 그 두 텍스트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니 로빈슨 크루소의 무엇이, 발레리와 투르니에를 사로잡았을까?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를 읽고, 나는 그런 의문들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나는 그 의문들을 다른 일들 때문에 곁으로 제쳐냈다. 그 의문이 되살아난 것은 쥘레트의 「점치기 텍스트 *Palimpsestes*」를 읽었을 때였다. 그는 거기에서 밑텍스트 hypotexte인 테포오의 「로빈슨 크루소」와 윗텍스트 hypertexte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의 상호관련성을 따지고 있었다 [쥘레트, 418-425]. 그 두 텍스트 [투르니에 자신이 어린이용으로 고친 「방드르디」를 첨가하면 세 텍스트] 사이의 상호관련성 *hypertextualité*¹⁾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지만, 쥘레트의 그 글에는 그 두 텍스트의 이데오로기적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내가 테포오의 「로빈슨 크루소」와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그 차이에 대한 관심때문이다. 그 차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레리의 「로빈슨」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

1) 텍스트성 *textualité*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윗텍스트성 *hypertextualité*에 대해서는 김현 : 프랑스 비평사·근대편 ; 문학과 지성사, 1983, pp.185-187을 참조할 것.

로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서술의 편의상 데포오의 「로빈슨 크루소」는 R_1 로,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는 R_2 로, 발레리의 「로빈슨」은 R_3 으로 약기한다. 인용문의 텍스트는 데포오 : 로빈슨 크루소[김병익역], 삼중당 문고, 1977과, 투르니에 : 방드르디[김화영역], 오늘의 세계문학 6, 1982이다].

2

R_1 의 바르트적 의미에서의 핵단위 [김현, 202]는 다음과 같다 :

- 1) 로빈슨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원이 된다.
- 2) 해적에 사로잡혀 노예생활을 한다.
- 3) 탈출하여 브라질에 자리잡고 성공한다.
- 4) 다시 모험을 하지만, 배가 파선하여 혼자 무인도에 표착한다.
- 5)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
- 6) 프라이디를 만난다.
- 7) 구출되어 프라이디와 함께 영국으로 되돌아온다.
- 8) 무인도의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섬을 유인도로 바꾼다.

R_1 을 베끼고 있는 R_2 의 핵단위들은 다음과 같다 :

- 1) 로빈슨은 무인도에 표착한다.
- 2)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
- 3) 방드르디를 만난다.
- 4) 구원되지만 방드르디만 떠나고 그는 섬에 남는다.
- 5) 쇠디라는 소년이 그와 함께 남는다.

R_1 과 R_2 의 핵단위들을 포개보면, R_1 의 4), 5), 6)과, R_2 의 1), 2), 3)이 거의 완전히 겹치지며, R_1 의 7), 8)과 R_2 의 4), 5)는 완전히 겹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겹친다. R_1 과 R_2 는 무인도에서의 혼자있음,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만 겹치며[그 겹침은 R_3 과의 겹침이기도 하다], 그 혼자있음, 만남의 결과는 R_1 과 R_2 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름이 R_1 과 R_2 의 존재이유이며, 투르니에가 데포오를 베낀 이유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바르트적인 의미에서 정보단위, 정조단위들을 모아보면, 핵단위들의 겹침이 약간의 차이를 갖고있는 겹침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핵단위별로 R_1 과 R_2 의 겹침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로빈슨은 무인도에 표착한다.

i) R_1 과 R_2 에서, 로빈슨의 무인도 표착은 소설전개의 기본핵심이다. 로빈슨은 R_1 에서 1632년 9월 30일생(R_1 , 5)으로, 그가 26세 되던 해[1658년] 9월 30일에 무인도에 표착하며,

R₂에서는 1737년 12월 19일생으로[R₂, 288], 그가 22세 되던 해[1759년] 9월 30일에 무인도에 표착한다. 로빈슨은 R₁에서나 R₂에서나 다 같이 28년 2개월 19일[R₁, 304; R₂, 426]을 무인도에서 보내며, R₁에서는 1661년 12월 19일에, R₂에서는 1787년 12월 19일에, 섬을 떠나거나, 섬을 떠날 수 있는 배를 만난다. 그 정보단위들은, i) R₁에서 로빈슨은 생일날에 무인도에 표착한다, ii) R₁에서 로빈슨이 출도한 날 R₂의 로빈슨이 태어나며, R₁의 로빈슨의 생일날 무인도에 표착한다, iii) R₁, R₂의 출도일은 같다, iv) R₂의 로빈슨은 R₁의 로빈슨보다 105년 늦게 태어나며, 101년 늦게 무인도에 표착한다 따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또 생일, 무인도 도착일, 출도일 [혹은 배 만난 날]이 각각[9-30; 12-19] 세번씩 겹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날짜들의 숫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R₁에서 로빈슨이 생일날 무인도에 표착하는 것과, R₂에서 그가 50세 되던 해 생일날 섬에서 나갈 수도 있는 배를 만나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보인다. R₁의 로빈슨이나 R₂의 로빈슨은 그 섬에서 새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생일날 다시 태어날 기회를 붙잡는다.

ii) R₁에서 로빈슨은 아다존강 북부나 기니아연안에서 보통 대하라고 부르는 강하구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며[R₁, 47], R₂에서 로빈슨은 칠레해안쪽에서 난파한다[R₂, 238]. 그 차이는 연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를 갖고있지 않다.

iii) R₁, R₂에서 로빈슨은 요크출신으로 묘사된다[R₁, 5; R₂, 288]. R₁의 로빈슨은 독신이며, 무인도에서 되돌아왔을 때, 두 누이와 남동생의 두 아들이 친척으로 남아있다[R₁, 304]. R₂의 로빈슨이 무인도에 표착했을 때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R₂, 235]. R₂의 로빈슨이 무인도에 표착했을 때가 22세때이니까, 그는 상당히 빨리 결혼한 셈이다. 아무리 늦어도 19세 때에는 결혼을 했어야 한다. R₁의 로빈슨이 독신이었던 사실은 R₁에 성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의 이유를 이루며, R₂의 로빈슨이 일찍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독신인 R₁의 로빈슨에게 섬은 새 생활공간이지만, 성에 눈뜬(?) R₂의 로빈슨에게 섬이 여자이다[R₂, 269].

……그는 이제부터 그 섬을 스페란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Speranza는 sperma를 상기시킨다—인용자]. 그것은 음악적이고 밝은 이름이었으며, 더군다나 그가 요크대학의 학생이었던 옛날 사귀었던 어떤 정열적인 이태리어자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단순하고 깊은 신앙심은 보다 피상적인 사람에게는 독선적이라고 여겨졌을 이 두가지 의미의 접근을 적당히 용납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대략적으로 그런 섬의 지도를 어떻게 보면 섬은 어떤 머리없는 여자의 몸, 복종과 공포 혹은 단순한 포기의 태도가 서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인 자세로 두 다리를 접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처럼 보였다[R₂, 269].

그가 사귄 이태리어자가 그의 아내가 아니었음은 분명한데 [옛날 사귀었던……] 그가 아내의 이름대신 그 여자의 이름을 섬에 부여한 것은, 그가 혹시 그 여자에게서 성을 알게된 것

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어떤 정열적인 이태리여자……]. 머리없는 여자의 몸은 머리없는 사람모양을 한 식물 만드라고라와 뒤에 연관되게 된다.

iv) R₁의 로빈슨은 흑인노예를 밀입국시켜 농장경영을 쉽게 하기 위해 모험길에 나서며 [R₁, 44], R₂의 로빈슨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신세계를 향한다[R₂, 235]. R₁의 로빈슨은 흑인노예를 부려본 경험이 있으며, R₂의 로빈슨에게는 없다. 인종차별주의는 R₁의 로빈슨이 R₂의 로빈슨보다 훨씬 강하다.

2)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R₁, R₂의 로빈슨에게 공통된 경험은 i) 구토, ii) 시간—일력, iii) 글쓰기의 경험이다.

i) R₁의 로빈슨은 그가 혼자 살고 있다고 믿은 무인도에 식인종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축제를 벌이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 해변에서 해골이며 손과 발, 사람들의 뼈를 보고, 실신할 정도로 구역질을 한다[R₁, 179]. 프라이디[금요일]와 만나서, 그에게 고깃국 먹는 것을 배워줄 때, 그가 소금을 치지않고 국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 소금을 치지않은 채 그것을 먹어보다가 약간의 구역질을 느끼긴 하지만[R₁, 229] 해변가에서 느낀 구역질만큼 심하지는 않다. R₁의 로빈슨의 구역질은 생리적이며 경험적이다. 그것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R₂의 로빈슨은 R₁의 로빈슨보다 훨씬 자주 구역질을 한다. 그는 파선한 배에 올라가 선장의 시체를 보고 구토를 하며[R₂, 250], 계들이 코코아 열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 깊은 곳에서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R₂, 259]. 그는 그가 잡은 쥐들이 그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볼 때도 구역질을 느끼며[R₂, 300], 거울속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도 구역질을 느낀다[R₂, 303]. 그 구역질의 원천은 그의 내부에 떠있는, 균형잡히지 않은 어떤 것이다[R₂, 322]. 그는 뒤에 방드르디[금요일]가 염소의 썩어가는 내장을 열어 그곳의 구더기를 모아 씹어서 독수리에게 주는 것을 보고 구역질을 느끼며[R₂, 373], 구역질이 백인 특유의 신경반응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 버려서는 안될 것인가 자문한다[R₂, 373]. 그의 구역질은 정신—신체적인 것이며 신경반응적인 것이다. 그것은 음식과 관련이 적은 관념적인 구역이다.

ii) R₁의 로빈슨은 시간관념이 철저하다. 그는 날짜 가는 것을 알기위해, 칼로 커다란 기둥에 대문자로 글씨를 파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을 해변가에 세운 뒤, 매일 칼로 눈금을 긋는다[R₁, 69]. 28년 2개월 19일간 무인도에 있으면서, 그가 시간계산에 착오를 일으킨 것은, 지독한 학질을 앓았을 때의 단 하루뿐이다[R₁, 103]. 그는 무인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의 시간은 유럽의 인간공동체에 매여있다. R₂의 로빈슨의 시간관념은 R₁의 로빈슨의 그것처럼 투철하지는 않다. 그는 때때로 시간에서 도피하여, 무시간의 상태를 즐긴다. 그는 훌러가는 날수 헤아리는 일을 게을리하며[R₂, 248], 그의 의식속에서 매일매일

은 거의 같은 날들이다[R₂, 253]. 그는 섬의 어느 나무 등치에 금을 하나 그어놓고 삼십일마다 십자가를 하나 새겨 놓으리라 다짐하지만 곧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 버린다[R₂, 258]. 그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 인간공동체의 시간 밖에 있다.

iii) R₁의 로빈슨은 난파선에서 가져온 잉크로, 그 잉크가 다할 때까지 글을 쓴다. 그가 글을 쓰는 것은 괴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이다[R₁, 70]. 그 글쓰기는 꼼꼼하고 정확한 글쓰기이다[R₁, 70]. R₂의 로빈슨은 처음에는 디오동이라는 물고기의 피부에서 새나오는 섬유질을 수건에 짜 냄새는 역하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붉은 색이 나는 염료를 얻어, 독수리 털을 적당히 다듬어 글을 쓰며[R₂, 268], 뒤에는 방드르디가 가져다준 알바트로스 깃털과 북극여우앞사귀를 갈아서 채취한 푸른색 물감으로 글을 쓴다[R₂, 409]. 그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동물성의 심연으로부터 반쯤 헤어나와 정신세계로 진입[R₂, 268]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토, 시간—일력, 글쓰기의 체험을 비록 그 의미의 편차는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R₁과 R₂의 로빈슨은, 그 무인도의 반력로서, 각각 앵무새와 킬레나무를 선택한다. 그 반력외에, 난파선에서 그들을 따라온 개[혹은 고양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R₁, 69; R₂, 283], 그 개들은 말의 깊은 의미에서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동반자는 아니다. R₁의 로빈슨에게 있어 앵무새는 말을 하는 타인이다.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할 때는 집안에서 여러가지 일을 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이사이 앵무새에게 이야기를 걸어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재미를 붙였다. 앵무새는 제 이름을 쉽게 익혀 다침내 예쁜 목소리로 풀하고 커다랗게 불렀다. 이 말은 내가 이 섬에 와서 나 스스로 지절이는 말외에 처음으로 들은 남의 말이었다[R₁, 129-130].

로빈슨과 풀은 아주 친해졌고, 풀의 발음이 푹푹하고, 그가 말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로빈슨은 그를 충분히 친구로 인정한다[R₁, 195].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삽화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R₁, 155].

나는 담을 넘어 들어가 사지를 피고 그들에 늑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곧 잠이 들었다. 그런데 「로빈, 로빈, 로빈 크루소, 불쌍한 로빈 크루소야! 너는 어디 있느냐? 로빈 크루소야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몇 차례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는 소리에 잠을 깬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독자들은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노를 저었고 오후에는 도보 행군을 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로해서 처음에는 죽은 듯 잠이 들어 깨어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잠을 자며 깨며 하는 중에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로빈 크루소, 로빈 크루소.」라는 소리가 반복되자 마침내 아주 잠에서 깨어났고 처음에는 무서워 벌다가 극도의 경악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풀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나를 부른 것이 앵무새 풀임을 곧 깨달았다. 앵무새는 내가 늘 말을 걸고 또

그렇게 가르친 대로 아주 슬프게 나를 불렀다. 폴은 내 가르침에 아주 익숙해져서 내 손 등에 앉아서도 내 얼굴에 부리를 바짝 대고 「불쌍한 로빈 크루소야!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소리를 저르곤 했다. 이런 말은 내가 가르친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를 잠깨운 부름이 바로 앵무새의 소리였고, 그 밖에 다른 누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 정신을 찾은 때는 한참 걸렸다. 첫째로 이 앵무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충실한 폴이라는 데 마음이 흡족해져서 정신을 가다듬고 손을 내밀어 「폴!」하고 이름을 불렀다. 사람과 잘 사귀는 이 앵무새는 내게로 와 전처럼 손등에 앉아서 「불쌍한 로빈 크루소!」라고 부르며 나를 다시 만나 즐거운 듯, 어떻게 여기 왔느냐, 넌 어디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 앵무새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R₁, 154-155].

R₂의 로빈슨에게는 그 앵무새가 없다. 대신 그에게는, 그의 성을 만족시켜주는 킬레나무가 있다. 그것은 그의 아내이다.

로빈슨은 그가 후일 식물적 방도라 부르게 될 그 문턱에서 넘어설까 말까 여러날을 망서렸다. 그는 수상한 표정으로 킬레나무 주위에 와서 빙빙 돌다가 마침내는 시커먼 두개의 거대한 허벅지처럼 풀잎에 가래이를 벌리고 있는 나뭇가지에게서 어떤 암록의 표지를 찾아내고 말았다. 드디어 그는 옷을 벗고 벼락맞은 나무동치 위에 엎드려 동치를 품에 안았다. 두 가지가 서로 만나는 곳에 벌어진 작고 이끼끼 구멍속으로 그의 색소가 들어갔다. 어떤 행복한 혼수상태가 그의 전신을 굳어지게 했다[……] 그는 여러달 동안 킬레나무와 행복한 관계를 맺었다[R₂, 329-330].

킬레나무는 그에게 행복감을 가져온다. 로빈슨—앵무새의 관계보다 로빈슨—킬레나무의 관계는 훨씬 적극적이다. 가르치는 자—배우는 자의 관계보다 주는 자—받아들이는 자의 관계가 훨씬 직접적이고 화해롭기 때문이다.

R₁의 로빈슨과 R₂의 로빈슨의 공통적 체험과 그들의 동맹자를 비교해보면, R₁의 로빈슨이 현실적이고 타산적이며 합리주의적이라면, R₂의 로빈슨은 환상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주의적이라는 것이 곧 드러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느끼고 있는 특성들이다. R₁의 로빈슨에게는 이성이 판단의 근원이다.

이성이란 수학의 본질이요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으로 처리하고 사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누구나 저절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R₁, 73].

라고 R₁의 로빈슨은 믿고 있으며, 그 신념에 의거해 생존의 모든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 그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이다. 불안은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사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사라진다. 이성을 신봉하는 합리주의자인 R₁의 로빈슨은 공작인 homo faber의 전형이다. R₂의 로빈슨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시각적 환상, 허깨비, 착란, 눈뜨고 꾸는 꿈, 몽환, 광기, 청각의 교란[R₂, 276]

등이다. 그 환각은 그것에 같이 저항할 이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된다. 그는,

내 두 발이 딛고 있는 땅은 그 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밟는 것을 필요로 함을 이제 나는 알 수 있다[R₂, 176]

라고 향해일지 속에 쓴다. 그에겐 그 이웃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 이웃을 찾아, 킬레 나무와 관계를 맺고[R₂, 328-330], 섬과 관계한다[R₂, 269, 343]. R₂의 로빈슨의 환각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누이와 어머니의 환각이다. 무인도에 표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빈슨은 난파선의 현창에 팔굽을 기댄 한 처녀를 환각속에서 바라본다. “매우 젊고 부드럽고 연약하며 벌써부터 우뚝하게 패인 듯한 얼굴에는 창백하고 비관적이며 포기한 듯한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로빈슨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 첫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법선에 타고 있던 젊은 여자의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벌써 십년전 어린 나이로 죽은 그의 누이동생 루씨였다[R₂, 265-266].” 그의 누이는 왜 어린 나이에 비관적이며 포기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을까? 그와 누이와의 사이에 르네-아멜리 유형의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로빈슨은 또한 무인도의 남동쪽 해안 초원 못미처 있는 작은 숲의 테레빈나무들 냄새때문에, “아버지가 손님을 받지 않는 바로 그날 [월요일 아침-인용자], 어머니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웃집 여자의 도움을 받아 마룻바닥을 윤내[R₂, 276]”던 것을 환각속에서 느낀다. 그 냄새는, 프루스트의 마들렌느과자류의 과거의 회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육체적 불만, 육체적으로 불만이 있을 때 가구나 마루를 더욱 윤내는, 바술타르적 불만을 또한 뜻하고 있다. 루씨와 어머니는, 진창과 동굴—구멍을 좋아하는 로빈슨의 광적 편향의 상징이다²⁾. “사람은 저마다 음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나의 취미는 진창쪽으로 쏠린다[R₂, 273].”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구멍속에서 “나는 행복한 영원속에 정지되어 있었다[R₂, 317]”라고 외친 로빈슨은,

진흙탕 목욕으로 인해서 주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덧없고 다정함—요컨대 병적인—존재인 나의 누이 루씨인데 반하여 동굴때문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존재는 어머니의 높고 엄격한 모습이다[R₂, 322].

2) 동굴의 이미지를 R₁과 R₂의 로빈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R₁, 192-194; R₂, 313-318에 자세히 나와 있다. 동굴의 형태는, R₁과 R₂에서 다같이 여성의 성기와 같은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입구의 길이 꽤 길어…… R₁, 192; 그 구멍의 벽면은 마치 살처럼 미끈미끈했지만 구멍이 어찌나 좁은지 그는 그 속에 반쯤 몸을 박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 거기에서는 축축하고 절분이 섞여 있으며 싱지 않은 신 맛이 섞인 냄새가 났고 무화과의 수액을 연상시키는 달콤 씹쓸한 맛이 곁들여 있었다……R₂, 317]. R₁의 동굴의 안은 “진조하고 평평하여 작은 자갈이 알맞게 깔려 있다. 징그러운 특별레도 보이지 않고 벽이나 천정에도 습기나 물기가 없었다. [R₁, 193]”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이다. R₂의 동굴 안은 여성 성기의 안과 같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로빈슨의 주목을 끈 것은 그 좁은 공간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그가 발견한 길이가 약 오피트는 되어 보이는 오목한 구멍이었다. 그 안쪽은 완벽할 만큼 반들반들하면서도 마치 매우 복잡한 모양을 찍어내는데 쓰도록 된 무슨 거꾸집 속처럼 이상한 모양의 기복이 생겨 있었다. 그것은, 그 자신도 그렇지 않나 싶기도 했었지만,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 모양이었다[R₂, 317].” 그곳은 로빈슨의 태이다. R₁의 동굴의 무생물성은 R₂의 동굴의 생물성과 대립한다. 그 대립은 습기의 유무에서 생겨난 대립이다. R₁의 로빈슨은 그 동굴 속에서도 어른이지만, R₂의 로빈슨은 그 동굴 속에서 어린아이이다.

라고 말한다. 그의 퇴행은 루씨와 어머니에 연관되어 있다. 그외에 그 환각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밝혀 줄 유년기의 정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루씨의 연약함과 어머니의 엄격함은 로빈슨의 여성성 anima의 양극을 이룬다. 진창—누이는 무기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을, 동굴—어머니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쉬고싶다는 욕망을 표상한다. 그 욕망이 건전하게 자제될 때, 그는 그의 정액을 온몸에 묻히고 요크로 날아가 의로히 혼자 사는 그의 아내에게 수정해줄 환상적인 새를 꿈꿀 수 있게 되지만[R₂, 328], 그 욕망이 제어되지 못할 때, 그의 에로스는 격렬하게 진창이나 동굴을 향한다. 현실원칙보다 쾌락원칙에 더 잘 복종하는 R₂의 로빈슨은 억압당한 소외인의 한 전형이다. R₁의 로빈슨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고딕식이라면 R₂의 로빈슨은 바로크식이다.

3) 로빈슨은 프라이디/방드르디를 만난다.

R₁의 로빈슨과 프라이디, R₂의 로빈슨과 방드르디의 만남은 그 두 소설에 돌연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둘이라해도 그것은 사회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 만남의 대목은 인용의 가치가 있다[프라이디와 방드르디는 다같이 금요일을 뜻한다. 로빈슨이 금요일에 만난 야만인이 바로 프라이디, 방드르디이다. 영어로 번역된다면,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는 프라이디로 옮겨질 것이고, 불어로 옮겨진다면, 테포오의 프라이디는 방드르디로 표기될 것이다. 한국어 번역자들은 프라이디와 방드르디를 다같이 금요일로 옮기지 않고 프라이디, 방드르디로 소리만을 옮긴다. 그것은 프라이디, 방드르디가 금요일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약화시켜 전달하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로빈슨—프라이디, 로빈슨—방드르디를 개별화시키는 강점을 또한 갖고 있다].

i) 나는 쌍안경을 통해 비참한 꼴을 한 두 사내가 보우트에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불들려 있었는데 이제 도살하기 위해 끌려 온 모양이었다. 그 중 하나가 그들 식대로 방망이나 나무꺾 같은 것에 맞아 곧 쓰러졌다. 다른 두어 명이 즉시 작업을 시작해서 요리를 하려고 그의 몸을 잔랐다. 그동안 또 하나의 제물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 옆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 불쌍한 야만인은 약간 몸이 자유스러운 것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살 욕망에 사로잡혀, 그들로부터 밧을 수 없을만큼 빠른 속력으로 곧장 내 쪽으로, 그러니까 내 집이 위치한 해안 쪽으로 모랫벌을 따라 달려 왔다. 내 쪽으로 달려오는 그를 보자, 솔직히 말해 나는 깜짝 놀랐다. 더구나, 모두 그를 쫓아오는 게 보였다.

이제 내 꿈의 일부가 현실이 되고, 내 손에 그가 피신해 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꿈처럼 야만인들이 추격을 단념하고 그래서 내가 무사히 그를 만나리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쩍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 그를 추격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희망을 걸었다. 더구나 도망하는 사내의 달음박질이 쫓아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라서, 멀찍이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더욱 용기가 솟았다. 이대로 30분만 달리면 그는 완전히 저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다.

그들과 내 집 사이에는 작은 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 대해서는 이야기 첫 부분에서, 배에서 짐을 나를 때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 강을 헤엄쳐 건너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비참하게 붙잡히

고 말 것이다. 도망치는 야만인은 강에 이르자 조수는 만조였지만 주저하지 않고 물 속에 뛰어들었다. 서른 번쯤 팔을 저어 헤쳐더니, 이쪽 독에 올라와 다시 놀랄만큼 빠르고 원기 왕성하게 뛰었다. 쫓아 오던 세 사람도 강에 이르자 두 사람은 헤엄을 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헤엄을 치지 못하고 저쪽 독에 서서 다른 두 사람을 보다가 순순히 되돌아갔다. 이리하여 야만인의 도망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쫓아 오는 두 명은 도망가는 사람보다 강을 건너는 시간이 두 배나 걸렸다. 지금이 내 하인이자 동료며 조수가 될 야만인을 손에 넣을 순간이다. 명백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 불쌍한 인생의 목숨을 구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흥분했다. 나는 후닥닥 사다리를 내려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다리 밑에 둔 총 두 자루를 가지고 왔다. 역시 서둘러서 언덕 위로 올라온 나는 바다로 달려갔다. 지름길을 통해서 언덕 아래로 내려가 재빨리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사이로 가서 도망치는 야만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돌아보더니 처음에는 쫓는 자로 잘못 알았는지 나를 보고 놀랐다. 내가 그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오는 놈에게 곧장 달려들어 총대로 한대 갈겼다. 원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총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고, 연기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야만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알지도 못하겠지만, 여하튼 나는 그들 일행이 총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사격을 피했다. 이렇게 첫째 놈을 쓰러뜨리자 뒤따라 오던 놈이 깜짝 놀란 듯 밟혔다. 나는 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가까이 가자 나를 알아챈다. 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를 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총을 쏘아 한 방에 그를 죽여 버렸다.

도망가던 야만인은 자기를 쫓던 적 두 명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선채 내 총소리와 불꽃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나가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멍뚱히 서 있는 꼴이 하늘이라도 동동 떠나가는 기분인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그에게 오라는 시늉을 했다. 그는 그 신호를 쉽게 알아 보고 몇 걸음 오다가 다시 멈추고 또 몇 걸음 오다가 다시 멈추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가 벌벌 떨면서 다른 두 사람이 당한 것처럼 자기도 내 포로가 되어 곧 죽음을 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내 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갖가지 시늉을 다 해 그에게 용기를 갖도록 했다.

그는 그제야 내가 자기 생명의 은인임을 알았다는 표시로 열 걸음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유쾌한 표정으로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마침내 바깥 다가온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더니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그리고는 내 발을 잡더니 자기 머리 위에 얹었다. 이것은 아마 영원히 내 노예가 되겠다는 맹세의 표시인 모양이었다 [R₁, 217-219].

ii) 이번에는 균형잡는 장대가 달린 세 척의 통나무배들이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모래위에 올려놓여 있었다. 둘러선 사람들의 동그라미는 첫번째보다 더 컸다. 그래서 쌍안경으로 그들을 살펴보면 로빈슨은 지난번과 같은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쌓여있는 몸뚱이가 험뎅거리고 그것을 향하여 두 사람의 전사(戰士)가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물을 바치는 의식은 다 끝나가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의식의 질서가 한동안 흔들렸다. 몸을 웅크리고 있던 무당이 갑자기 엎드렸던 자세에서 한 남자쪽으로 펼쳐 뛰어 일어나더니 배가 상상한 팔로 그를 가리키며 멀건히 벌린 입으로 로빈슨은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저주의 말을 마구 퍼부어댔다. 아로강족이 속죄의 뜻으로 거행하는 의식에서 한 사람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는 일도 있는가? 무리들 속에서 잠시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 중의 한 사람이 큰 칼을 손에 들고 저목된 죄인에게로 다가갔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죄인을 쳐들어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큰 칼이 한번 내려쳐졌고 가죽 허리 옷이 다시 벌거벗은 몸뚱이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 가 없는 사람은 펼쳐 뛰더니 숲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로빈슨의 쌍안경 속에서 그 사람은 제자리에서

뛰어오르는 듯했고 다른 두 인디언이 그를 뒤쫓았다. 실제로 그는 로빈슨 쪽을 향하여 비상한 속도로 곧장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는 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달리는 바람에 몸이 꺾여 가기라도 한 듯 훨씬 더 날씬한 몸집이었다. 피부는 더 짙은 색인 듯했고 약간 흑인에 가까워서 다른 사람들과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 그가 희생자로 지목된 때는 그런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는 동안 그는 시시각각 더 가까스로 다가왔고 그와 뒤따라 오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끊임없이 멀어져갔다. 만약 해변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않았던들, 로빈슨은 도망치는 사람이 그를 보고서 그의 걸음으로 와서 숨으려고 달려오는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잠시 후면 세 사람의 인디언이 그의 코 앞에 다가올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던 희생자를 또 하나 발견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화해하게 될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텐이 해변쪽을 향하여 맹렬하게 쫓아왔다. 망할놈의 짐승같이 아니라! 로빈슨은 개에게 달려들어 목을 팔로 꺾어안고 왼손으로 주둥이를 움켜잡으며 한 손으로 장총을 간신히 어깨에 받쳐들었다. 뒤따라 오는 인디언을 하나 총으로 쏘아 쓰러뜨렸다가는 그들 무리 전체가 그에게 달려들 위험이 있었다. 반대로 도망하는 놈을 죽이면 제사의식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되고 어쩌면 그외 개입이 분노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으로 풀이될지도 몰랐다. 희생자 편에 서거나 가해자편에 서거나 하여간 선택을 해야 할 처지라면—어느 편이건 그에게는 둘다 마찬가지지만—역시 강한 쪽에서 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이 여겨졌다. 그는 이제 삼십보 거리밖에 되지않은 곳까지 다가온 도망자의 가슴 한복판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날아가려는 순간, 주인에게 잡힌 채 행동이 불편해진 텐이 몸을 배내려고 갑자기 발버둥을 쳤다. 총구가 약간 과녁에서 빗나가면서 뒤쫓아오던 인디언 한 사람이 포물선을 그리며 고꾸라지더니 모래를 흩뿌리며 쓰러졌다. 그 뒤를 따르던 인디언은 걸음을 멈추고 자기 동료의 몸 위에 몸을 숙였다가 머리를 들고 모래밭이 끝나는 지점의 장막같은 숲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마침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들 무리가 월을 그리며 모여 있는 쪽으로 도망쳐버렸다[R₂, 346-348].

로빈슨—프라이디, 로빈슨—방드르디의 만남에서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R₁에서는 로빈슨이 그런 유형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고, R₂에서는 로빈슨이 그러한 만남을 기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슈네트도 그것을 중요한 엇갈림으로 보고있다[슈네트, 418, 422]. R₁의 로빈슨은 야만인 하나를 손에 넣어 그를 부리는 것을 꿈꾸며, 그 꿈은 일년 반이 지난 후에야 달성된다[R₁, 216]. 식인종의 제물 중의 하나가 탈출하여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자기에게 오라고 소리치며 손짓을 한다. 그 순간은 그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는 그의 영원한 노예를 구한 것이다. R₂의 로빈슨은 그와 반대로 노예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야만인이 그에게 달려오자, 그를 보고 맹렬히 쫓아대는 개의 주둥이를 막으며, 강한 편에 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여 그 야만인을 쏘려한다. 그것은 개 때문에 방해받는다. 그는 그가 쏘려한 야만인 대신에 뒤쫓아오던 인디언을 쏘게 된다. 그는 우연히, 그의 의사에 반하여 노예를 갖게 된 것이다. R₁의 로빈슨에게 있어, 프라이디는 그의 꿈의 실현이지만, R₂의 로빈슨에게 있어, 방드르디는 우연한 동거인이다. R₂의 로빈슨에게 R₁의 로빈슨의 확장주의적 주인의식이 없다. 그는 타자지향적이지 않다. 그는 자연, 강한 자와 싸워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것의 주인이 되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강한 자에게 붙어 자신을 유지하려 한다. R_1 의 로빈슨이 강한 남성적 태도를 보여준다면 R_2 의 로빈슨은 연약한 여성적 태도를 보여준다. 투르니에의 표현을 빌리면, R_1 의 로빈슨은 동물적 방도 *la voie animale*을 선택한 셈이고, R_2 의 로빈슨은 식물적 방도 *la voie végétale* [R_2 , 329]를 선택한 셈이다.

프라이디와 방드르디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프라이디는 26세쯤 [R_1 , 221]된 것 같지만 [R_1 의 로빈슨이 무인도에 표착한 것이 26세 때이다], 방드르디는 열다섯 살도 넘지 않았을 것 같다 [R_2 , 351]. 프라이디는 늘씬하고 잘생긴 사내이며, 사지가 크고 선량해보이면서도 사나이다운 점이 있다. 그가 미소를 지을 때에는 유럽인처럼 부드럽고 상냥하다. 그의 피부색깔은 아메리카 토인들처럼 추하게 노랗거나 기분나쁜 다색이 아니라, 일종의 밝은 암갈색 올리브 빛이다 [R_1 , 221-222]. 요컨대 그는 유럽사람 같다. 방드르디는 검둥이 트기이며, 너무 어려서 무얼 가르쳐줘도 방자하게 웃음이나 터뜨린다 [R_2 , 350-351]. 그는, 재수 없는, 니그로와 잡종인 인디언이다. 프라이디는 영어를 조금도 몰라 로빈슨이 그것을 가르쳐야 할 정도이지만 [R_1 , 222], 방드르디는 로빈슨이 시키는 말을 알아듣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영어를 알고 있으며, 논쟁의 방법도 알고 있다 [R_2 , 352]. R_1 의 로빈슨은 프라이디에게, 그가 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 프라이디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R_1 , 222]. R_2 의 로빈슨은 완전한 인간이 아닌 야만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도 아니며 물건 이름도 아닌, 반쯤은 생명이 있고 반쯤 추상적인, 방드르디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다. 그 이름에는 시간적이며 우연적이며 마치 일화적인 것같은 성격이 강하게 깃들여 있다 [R_2 , 351]. 프라이디에는 계의적 성격, 기념적 성격이 깃들어있는데 반해, 방드르디에는 우연적 성격, 일화적 성격이 깃들여 있다. 프라이디는 로빈슨을 부유케 할 것이지만, 방드르디는 로빈슨을 파괴할 것이다. 프라이디는 필연이지만, 방드르디는 우연이기 때문이다.

R_1 과 R_2 의 서로 겹치는 핵단위들의 분석은, 그 외양의 겹침과는 다르게 세목에 있어서는 많은 엇갈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엇갈림은 핵단위들의 엇갈림을 준비하는 준비단위들이며, 그것은 예견케 하는 예비단위들이다. 그 엇갈림을 선명히 하기 위해, R_1 과 R_2 의 핵단위들을 계속해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R_1 -4) 로빈슨은 프라이디를 교육시킨다.

로빈슨은 모든 면에서 프라이디보다 우월하다. 로빈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인이며, 프라이디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노예이다 [R_1 , 225]. 로빈슨은 모든 것을 가르쳐, 그를 문명인으로 만든다. 그 문명인은 물론 피식민자로서의 문명인이다. 그는 그의 세계의 것을 포기하고, 주인의 세계를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인다. 그는 주인처럼 먹고 생각하고 믿는다.

i) ……잠시후 그에게 말을 걸어 내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R_1 , 222].

ii) 나는 그에게 토기에 담은 우유를 주고 그 앞에서 우유를 마시는 법과 빵을 우유에 적어 먹는 법을 가르쳤다[R₁, 222].

iii) 자기 몸이 옷에 익숙해지자 마침내 그도 옷을 아주 좋아했다[R₁, 224].

iv) 쓸모가 없고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무엇이든 그에게 가르쳤다[R₁, 226].

v) [고깃국을 먹은 뒤] 그는 앞으로 사람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R₁, 229].

vi)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R₁, 234].

프라이디는 그 가르침을 통해, 식인습관, 그의 배나막키 신을 버리고, 문명인같이 먹고, 입고, 믿게 된다. 그는 로빈슨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신자가 되었고[R₁, 239], 그의 충실한 노예가 되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려 한다.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한 흥미있는 문단을 데포오는 보여준다.

「프라이디, 너는 배 나라, 배 고향에 가고싶지 않니?」

「가고싶어요. 우리 나라에 가면 굉장히 기쁩니다」

「거기 돌아가서 무얼 하겠느냐? 돌아가면 다시 전처럼 야만인이 되어서 또 사람고기를 먹겠지?」

그는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아니, 아닙니다. 프라이디는 그들한테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빵과 가축고기, 우유를 먹고 다시는 사람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죽일텐데」

이 말을 듣자 그는 엄숙한 표정이 되더니 말했다.

「아니, 그들은 안죽입니다. 그들은 배우기를 사랑합니다」[R₁, 244]

이 문단은 식민지교육의 완벽성을 강력하게 드러낸다. 프라이디의 교육전 상태는 야만상태이며, 교육후 상태는 문명상태이다. 프라이디에게 주인의 것은 모두 문명적인 것이며, 그의 것은 모두 야만적인 것이다. 그 야만인들은 배우기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 문명인에게 착취되기를 바란다. 배우기를 사랑하는 피식민지인은 교육자에게 가르쳐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피교육자의 것은 다만 교육자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의 웃음을 유발케 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프라이디가 로빈슨에게 가르쳐준 곱잡는 방법은, 그것이 그가 로빈슨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것이겠지만,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R₁, 321-325].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유럽의 생활양식이며, 토착인의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 R₁의 로빈슨의 교육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판받게 될 유럽 중심주의적 교육이다. 프라이디가 로빈슨을 아무 주저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 교육 덕분이다. “프라이디는 가는 곳마다 충실하게 따라다니면서 가장 충성스런 일군임을 보여주었다[R₁, 305]”라고 로빈슨이 말할 때의 그 오만한 행복함!

R₂-4] 방드르디가 로빈슨을 교육시킨다.

방드르디는 프라이디와 다르게, 로빈슨이 시키는 말을 알아듣기에 충분한 영어를 알고

있으며, 나이는 적지만, 땅을 개간하고 갈고 쇠스랑으로 고를 줄도 알고 김을 메고 곡식을 베고 추수하고 털고 뿜고 채질하고 반죽을 하며 익힐줄도 안다[R₂, 352]. 로빈슨은 별로 그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그는 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는 R₁의 로빈슨과 다르게 유색인종에 대해 이성따위를 기대하지 않는다[R₂, 356]. 그는 주인으로서 그가 시키는 것은 선이고 그가 금지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R₂, 352]. 그런데 방드르디는 어려서 자신도 모르게 어리광을 피운다. 그 어리광은 웃음을 동반한다. 바로 그 웃음이 주인—노예의 관계를 망쳐버린다. 주인의 절대적 세계는 그 웃음 때문에 폭발한다. 그 웃음은 로빈슨에게겐 무시무시한 웃음이다.

그 웃음은 총독과 그가 통치하는 섬의 걸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그 거짓된 심각성의 가면을 벗겨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로빈슨은 자기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흔들어 놓는 그 어린 웃음의 폭발을 중요한다[R₂, 352-353].

그는 로빈슨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그 웃음은 로빈슨에게 견딜 수 없는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그 웃음은 파괴적인 폭소이며, 그의 마음속에 갇들어있는 듯한 어떤 악마가 은연중 모습을 드러내는 폭소이다[R₂, 356]. 그 웃음과 함께 방드르디는 체제를 위협하는 파괴적 존재로 변해간다. 그의 이상한 본능[R₂, 367]은 세계—자연과의 이해·공감이다. 그는 방드르디가 담배파이프를 던져 그의 동굴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뒤에[R₂, 383] 서서히 방드르디를 닮아간다. 그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낭만적 사고방식[R₂, 367], 바로크적 상상력[R₂, 385], 그의 눈에서 보여지는 두언가 빛나고 순수하고 섬세한 것[R₂, 381]에 끌려, 로빈슨은 그의 잘 다스려놓은 섬의 질서를 넘어선 어떤 세계를 꿈꾸게 된다. 로빈슨은 방드르디의 세계속에 어떤 감춰진 통일성과 암암리의 원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R₂, 388] 알게되고, “그의 동료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이 그에게 충격적인 변모를 유발하는 것을 관심깊게 바라다본다[R₂, 389]. 거기에서 그의 변모가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그의 걸모습이 변화를 입었다. 그는 머리 깎는 것을 포기했다. 그의 머리는 날이 갈수록 형편없는 꼴로 야수의 털처럼 뒤엉켰다. 반면 그는 폭발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수염을 잘라 버렸다. 그는 아침마다 그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볍고 구멍이 많은 화산석에 칼날을 오랫동안 갈아서 얼굴에 난 수염을 깎았다. 그러자 옛날의 그의 권위를 지탱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던 엄숙하고 존장같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같은 면이 사라져 버렸다. 이리하여 그는 한 세대쯤은 더 젊어졌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심지어 이제는—그 어떤 쉬 낚잡할 수 있는 모방현상에 의하여—그의 얼굴과 그의 동료의 얼굴 사이에는 분명히 많은 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해를 두고 그는 방드르디의 스승이요 동시에 아버지였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그의 형제가 되어버렸다—그런데 형인지 동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의 몸 역시 달라졌다. 그는 항상 열대지방에서 영국인을—그것도 붉은 머리의—위협하는 뜨거운 햇빛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햇빛에 나갈때면 조심스럽게 몸 전체를 가리는 주의를 했고 게다가 염소가죽으로 만든 양산도 쓰는 것을 잊지않았다. 동굴

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지내고 땅속에 들어가 살아온 탓으로 그의 삶은 무우나 나무뿌리처럼 연약한 우유빛이었다. 방드르디에게서 용기를 얻어 이제는 알몸으로 햇볕에 나섰다.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쭈그린 채 흥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이 차츰차츰 피어났다. 피부는 구리빛으로 변했다. 새로운 자부심이 가슴과 근육을 팽창시켰다. 그의 몸에서 어떤 일이 뿜어나왔고 그의 영혼은 거기에서 전에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자신감을 얻어내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어렵스런 육당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육체는 단순히 외부세계의 짜임새 속에 끼여 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충실하고 강력한 동반자 구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전 같으면 위신상 어렵도 없다고 생각했을 놀이와 운동을 방드르디와 함께 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그는 방드르디 못지않게 땅 짚고 겨우로 서서 견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 그는 처음에 절벽의 바위에 기대 채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고 있던 벽에서 몸을 떼고 넘어지지 않은 채 움직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몸무게에 눌러 팔이 땀졌지만 그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이제 배워야 할 것은 그 보다는 그 어치구니 없는 무게를 적절하게 지탱하는 균형의 기교였다. 그는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길속에서 사지(四肢)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진보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했다. 그는 다섯개의 손가락이 머리와 팔과 다리로 변한 하나의 거대한 손으로 자기의 몸이 둔감하는 것을 꿈꾸어 보았다. 다리가 견지처럼 일어서고 등이 이 다리 저 팔 위에 마치 하나의 손가락 위에 얹힌 손처럼 놓여 놓일 수 있어야 한다[R₂, 389-390].

그 변신뒤에 그와 방드르디는 화해롭게 삶을 영위해 나간다. 방드르디의 삶의 방법은 로빈슨의 모범이 된다. 자연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삶, 그것은, R₁의 로빈슨이 야만인들의 삶이라고 부른 삶이다. 그것은 이성인의 눈으로 보면 기괴한 바로크적 삶이다. 그 삶은 신명나는 놀이[R₂, 393]의 삶이다. 주인—노예의 삶이었던 로빈슨—방드르디의 삶은, 놀이의 두 담당자의 삶으로 바뀐다. R₁과 R₂의 결정적인 차이는, R₁의 로빈슨이 부인한 야만인의 삶을, R₂의 로빈슨은 놀이의 삶으로 수락한 데 있다. 공작인 homo faber(R₁)은 사유인 homo sapiens(R₃)을 거쳐 유희인 homo ludens(R₂)이 된 것이다. 그 변신을 드러내기 위해, 투르니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방드르디를 로빈슨의 스승으로 만든 방법이다³⁾. 방드르디의 야만적 삶은 야만적 삶이 아니라, 그 나름의 통일성과 원칙이 있는, 세계와 나의 합일을 보여주는 즐거움의 삶이다. 그 삶은 비시간적인, 아니 초시간적인 삶이다. 그 삶은 “있는 그대로의 원소들이 서로 혼연일치가 되어있는 그 신비의 위대함 속에 빠진채 무아지경이 되 [R₂, 405]”는 삶이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의 삶이 아니라, 우주[자연]중심주의의 삶이다. 그가 섬에 남고 방드르디가 섬을 떠난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다. 로빈슨—방드르디는 로빈슨—프라이디의 주인—노예관계, 식민자—피식민자 관계들, 우주중심주의로 극복한다. 노예들은 노예의 삶이 야만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인과 같은 위치에 올

3) R₁의 로빈슨—프라이디의 관계가 R₂에서 전도된 것의 원천에 투르니에의 동키호테 읽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동키호테—산초 판사의 관계가, 로빈슨—방드르디의 전도를 가능케 한 관계가 아닐까. 아우렐바하는 그의 『미메시스』에서, 「동키호테」 2부 10장의 한 대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동키호테—산초 판사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미메시스, 국역, 40].

라선다. 주인의 삶을 배우지 않겠다, 나는 야만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방드르디의 외침이다. 로빈슨은 그 외침에 감염된 사람이다. 방드르디가 떠나고, 화이트버드[白鳥]호의 어린 수부가, 로빈슨의 정다운 눈길에 끌려 그와 같이 살기를 결정하고 섬에 남는다. 무인도에 남아있는 백인 두 사람은 팽창주의적 삶에 저항하는 비유법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이 선택한 삶은 낭만적, 바로크적 삶이다. 섬은 R_1 의 로빈슨에게 법률적인 소유물이지만 R_2 의 로빈슨에게 이형동체이다.

3

베깁은 비평적 성찰없이 단순한 번역에 불과하게 된다. 데포오의 「로빈슨 크루소」를 베깁 때, 투르니에가 비판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비판한 것은 주인—노예의 관계이며, 더 나아가서 이성위주의 팽창주의적 합리주의이다. R_1 은 완전한 주인—노예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 완전함은 언제나 주인은 선이고 노예는 악이라는 전제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 전제는 주인의 노예 착취를 정당화하고, 주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한다. 노예의 이성은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하는 이성일 따름이다. 그의 이성은 자기의 이전 상태를 야만적인 것이라고 사유한다. 그 주인—노예의 관계는, 노예가 자기의 이전 삶에도 통일성과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각·반성할 때, 주인의 이성을 순진한 눈으로 볼 때, 다시 말해 굴욕적인 합리성의 눈이 아니라 창조적인 직관성의 눈으로 볼 때, 그 논리성을 잃는다. 투르니에의 방드르디가 데포오의 프라이디보다 나이가 어리고 잘 웃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로빈슨—프라이디의 주인—노예 관계는 17세기 영국인의 팽창주의적 이성의 한 좋은 예이다. 그 이성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성이며, 작업과 능률을 중요시하는 합리적 이성이다. 그 이성이 노예를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문단에 첨예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깊은 감동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곧 이 세계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의 재능과 힘을 가지면서 그것을 살려서 쓸 길을 빼앗기게 된 것은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한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이성을 똑같은 애정과 똑같은 친절 및 의무감을, 똑같은 열정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똑같은 감사, 충성, 신뢰감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하고 또 선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똑같이 주셨다. 그리하여 이러한 미덕을 발휘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실 때에는 그들도 자신들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준비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철저하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자 기분이 우울해진다. 즉 우리는 성령의 빛이 가리키는 지시를 받고 우리의 이해력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을 비열한 목적에 쓰고 있지 않는가 통절히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값은 내 노예로 판단해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지식을 감추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더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빛을 감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면서 양쪽에 똑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더라도 따져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억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이들이 어떤 빛과 율법으로 별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본성이 한없이 성스럽고 의로우시다. 이 야만족들이 별을 받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성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근거는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이 되는 규율을 어긴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든 진흙 아닌가,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R₁, 225-226].

바울의 논리 그대로 만들어진 그릇은 토기장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성의 주장이다. 그 이성은 나는 나를 만든 토기장이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설득력을 상실한다. 과연 방드르디에겐, 죄, 구원, 지옥, 그리스도의 강림, 황금송아지, 목시룩 따위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유현하면서도 약간 점이 나는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R₃, 354]”과도 같은 것일 따름이다. 나는 너의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의 신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너의 합리적인 말을 너의 신만의 합리성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말이다. 주인의 신은 노예의 신이 아니다. 자기의 베나막시신을 포기하지 않은 프라이디가 바로 방드르디이다. R₂의 로빈슨은 그 방드르디의 선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그가 그의 합리적 신[교회, 도량형기 표준국, 헌장……]을 포기하고, 방드르디의 범신론, 물활론에 빠져들음을 의미한다. 그 범신론자가 외친다.

해여, 나를 중력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낭비와 부주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하되 내 젊음의 충동을 막고 삶의 기쁨을 꺼버리는 중력의 농도 짙은 기운을 내 피속에서 씻어내다오. 거울 속에서 내 북방인 특유의 무겁고 슬픈 얼굴을 들여다 볼 때면 <그라스 *grâce*>라는 말의 두가지 의미—무용수에 적용되는 우아함이라는 의미와 성자(聖者)와 관련이 있는 은총이라는 의미—가 태평양의 어느 하늘 아래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에게 아이리니를 가르쳐다오. 가버음을, 계산도, 감사도, 두려움도 없이 이 대낮의 직접적인 선물을 웃으며 받을 줄 아는 방법을 내게도 가르쳐다오.

해여, 나를 방드르디와 닮게 해다오, 웃음으로 환락피고, 송두리째 웃음을 위하여 빛어진 방드르디의 얼굴을 나에게 다오. 매우 높이면서도 뒷쪽으로 흘러 내리는 저 이마를, 검은 머리 태래의 꽃장식으로 덮힌 저 이마를. 조소를 띠며 항상 불이 켜져있는 듯 하고, 아이리니 때문에 패여 있으며,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재미있어서 뒤집혀질 듯한 저 눈을. 두 귀통이가 위로 치켜진, 탐욕스럽고 동물적인 저 구불구불한 입을. 보다 더 잘 웃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스운 것으로 치부하기 위하여, 어리석음과 악의라는 두가지 경련을 보다 더 잘 고발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어깨 위에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머리통을……

그렇지, 내 저 바람의 동지가 이처럼 나를 이끄는 것은 바로 나를 너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해여, 너는 내게 대하여 만족하는가? 나를 바라보라. 나의 변신은 너의 불꽃 쪽을 충분히 지향하고 있는가? 향지성(向地性) 잔뿌리들처럼 땅쪽으로부터 자라던 내 수염은 없어져버렸다. 반면 내 머리털은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머리카락들을 뒤뉘고 있다.

나는 너의 용광로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다. 나는 벽시계다. 이 수직의 프로펠은 대지를 거스리는 너의 지고함을 규정해주고 해시계같은 모습으로 그림자 바늘을 가지고 너의 걸음걸이를 가리켜 보인다.

나는 너의 불꽃 속에 담그어 놓은 단검처럼 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너의 증인이다(R₂, 411-412).

로빈슨 범신론의 표상이 바로 그의 돈호법의 대상의 이루는 해이다. 해의 빛남, 해의 열은 그의 존재의 지꺼기들을 완전히 지운다.

어떤 불칼 하나가 그의 몸속으로 박혀오면서 그의 존재를 송두리째 밝혀주었다(R₂, 442).

R₁의 로빈슨의 합리주의와 R₃의 로빈슨의 사유의 병은 R₂의 로빈슨의 범신론에 의해 극복되며 비판된다⁴⁾.

4) 많은 작가들이 로빈슨 크루소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의 소설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왓트는 서구 문화의 대 신화로써 파우스트, 동주양, 동키호테, 로빈슨 크루소의 넷을 들고 있다[왓트, 95].

Robinson Crusoe falls most naturally into place, not with other novels, but with the great myths of Western civilization, with *Faust*, *Don Juan*, and *Don Quixote*. All these have as their basic plots, their enduring images, a single-minded pursuit by the protagonist of one of the characteristic desires of Western man. Each of their heroes embodies an *arete* and a *hubris*, an exceptional prowess and a vitiating excess, in spheres of action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our culture. Don Quixote, the impetuous generosity and limiting blindness of chivalric idealism; Don Juan, pursuing and at the same time tormented by the idea of boundless experience of women; Faust, the great knower, his curiosity always unsatisfied, and therefore damned. Crusoe, of course, seems to insist that he is not of their company; *they* are very exceptional people, whereas anyone would do what *he* did, in the circumstances. Yet he too has an exceptional prowess; he can manage quite on his own. And he has an excess: his inordinate egocentricity condemns him to isolation wherever he is.

The egocentricity, one might say, is forced on him, because he is cast away on an island. But it is also true that his character is throughout courting its fate and it merely happens that the island offers the fullest opportunity for him to realize three associated tendencies of modern civilization—absolute economic, social, and intellectual freedom of the individual. [왓트, 95-96]

왓트에 의하면, 동키호테는 기사적 이상주의의 격렬한 관태함과 제한적 맹목성을, 동주양은 끝없는 여자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파우스트는 언제나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호기심을,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지적 자유를 체현하고 있다. 동주양, 파우스트, 동키호테는 예외적 인물이지만, 로빈슨 크루소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자유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의 신화는 개인적 자유로움의 신화이다. 그 네 명 중에서 소설의 인물은 로빈슨과 동키호테이다. 마르뜨 로베르가 소설인물의 원형으로 로빈슨과 동키호테를 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Marthe Robert, 131이하]

文 獻

- 1) 데포오 : 로빈슨 크루소 : 김병익역, 삼중당문고, 1977
- 2) 투르니에 : 방드르디 혹은 태평양의 끝 : 김화영역, 오늘의 세계문학 6, 중앙일보사, 1982
- 3) Valéry: *Oeuvres II*, Pléiade, 1960
- 4) Genette: *Palimpsestes*, Seuil, 1982
- 5)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a Pelican Book, 1957
- 6) Marthe Robert: *Roman des origines et origines du roman*, Grasset, 1972

Résumé

Sur l'intertextualité (1)

Une perspective intertextuelle est une perspective thématique. Elle est aussi une perspective comparative. Je me propose, dans cette étude, de comparer *Robinson Crusoe* de Defoe (vers 1660~1731), romancier anglais, avec *Vendredi* de Tournier (1924~), écrivain français. *Robinson* et *Vendredi* sont les deux moments du mythe Robinson: l'avènement et le déclin de l'individualisme moderne européen.